

July 27, 2011

PC·휴대폰 등 전자폐기물 재활용, 보안·마케팅 분야에서 각광받을 것



▲ 존 슈게리안 ERI 사장

美 ERI 슈게리안 사장

"컴퓨터나 휴대폰 등 전자 폐기물의 재활용은 자원 및 환경 보호뿐 아니라 정보 보안이나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을 것입니다."

[미국](#) 최대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ERI의 존 슈게리안(Shegerian) 사장은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그냥 버리면 그 안에 있던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제대로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국방부도 컴퓨터를 폐기할 때 정보 보안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분쇄한다"면서 "전자 폐기물을 그냥 쓰레기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폐기물 업체가 미 국방부의 컴퓨터 폐기물을 제대로 분쇄하지 않고 [중국](#)이나 중동의 적대국에 내다 팔았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하드디스크에 있던 정보를 빼내려고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ERI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 폐기물을 분쇄한 뒤, 유리·플라스틱·철·구리 등으로 분류해 제조업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미국 최대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다. 미국 내 7개 공장이 있고, [인도](#)·[브라질](#)·[사우디](#) 등에 해외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연간 매출액은 6000만달러이며, 한국의 [LS니코동체련](#)이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다.

슈게리안 사장의 명함은 일반 명함의 3분의 1 크기였다. 종이를 아끼기 위해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전자 폐기물 재활용을 단순히 환경이나 자원 보호 차원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마케팅 등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자 폐기물에서 나온 자원을 재활용해 만든 '그린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고 한다. ERI와 제휴를 맺은 미국 최대 전자제품 양판점인 베스트바이는 매장에 고물 전자 제품을 수거하는 접수대를 설치해 놓았다. 전자 쓰레기 처리에 앞장선다는 마케팅의 일환이다.

"베스트바이가 놀란 것은 폐기물을 갖다놓는 고객의 51%가 매장에서 다른 제품을 사 갔다는 점입니다. 마케팅에서도 성공하고 판매도 올리는 효과를 본 것입니다."

슈게리안 사장은 스스로를 '도시의 광부'라고 불렀다. 도시에서 나오는 전자 폐기물에서 희귀 금속을

캐내 판매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린 마케팅' 바람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서 광산에서 캐낸 구리보다 전자 폐기물에서 재처리된 구리가 더 비싸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Original UR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7/2011072702244.html